

꼭 선거해야 하나? 조계종 '선거법 개정론' 떴다

폐단 너무 크다 '공감'

교구본사주지들 중회의장 초청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한 토론

1999년 2월 조계종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총무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던 경찰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CNN, AP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도돼 한국불교 이미지에 치명상을 가했다.

소위 '98년 조계종 사태'는 선거로 인한 대표적 폐해 사례로 꼽힌다. 당시 총무원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불거진 월주 스님의 3선 논쟁은 결국 폭력을 동반한 총무원 정쟁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으로 삼보장재를 유실했고 결국 사회법에 의해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19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다.

문제점 계속 드러나 개정 시도

조계종의 현행 각종 선거제도는 94년 조계종 개혁 최대의 결과물이다. 당시 총무원장이 교구본사 주지 임명권을 갖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자 중단 주요 소임을 투표로 통해 선출하는 권력 분점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열이라는 병폐가 곧 나타났다. 선거 과정에서의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문건간 평가투기는 선거후에도 지속됐다. 특히 일부 선거에서 진 쪽은 사회법에 기대 종단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점이 계속 불거지자 1998년 8월 중앙중의회가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중의회원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2002년 2월 중앙중회 중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2002년 2월 제153회 임시중앙중회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런 시점에서 6월 11일 중앙중

원은 의원수를 축소하고,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며, 교구중회에서 선출하지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하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단적 필요성 인식 전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기보다 총무원장이나 교구본사 주지 위상 등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법등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중앙중회 제과별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뒤, 올 9월 임시중회에 선거법 관련 중헌을 개정하고 올 11월 정기중회와 내년 2월 임시중회에서 관련 중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말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선거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총무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중의회원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7~8가지 중헌중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인사 주지 현웅 스님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종단 인품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강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6월 15일 평양 광범사에서 열린 남북합동법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속적인 교류로 번영을”

6·15 민족통일대축전, 남북불자 '화합' 마당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폐회한 가운데, 남북불교계도 합동법회를 병행하는 등 향후 교류 협력 사업의 기반을 닦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등 스님은 6월 14일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축하 연설을 통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비로소 펼쳐질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에는 남북불교계 대표들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이 평양 광범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원불교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법등 스님은 또 남북 민간대표단과 함께 16일 만수대의사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남측 불교계에서는 법등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중의회장 평화, 통도사 주지 현문, 신흥사 주

‘조계종찰’ 진전사 복원됐다

26일 대웅전·요사채 낙성

조계종 조 의 국사가 주석했던 양양 진전사의 대웅전과 요사채가 완공됐다.

속초 신흥사는 6월 26일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앙중의회원, 문화

관공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전사 부처님 집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2001년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시작된 이후 5년 만에 완공된 대웅전(20.7평)은 정면 3칸 측면 2칸, 요사채(63평)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다. 유철주 기자

■ 초대 조계종 균종교구장은 누구? 이달말 교구 출범...하마평 무성

6월말 조계종 균종교구의 출범을 앞두고 '균포교 사령탑'인 균종교구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초대 균종교구장은 외부적으로 타종교와의 치열한 포교 '각축전'을 지휘해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산적한 균포교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불교포교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균불교 관계자들은 초대 교구장의 요건을 세 가지로 꼽는다. 특수한 조직 문화를 가진 균불교의 생리에 정통하면서 종단 내에서 신성교구로서 균종교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인물, 여기에 균포교에 필요한 재정적 원력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기본 요건으로는 법랍 25년 이상 세수 45~70세, 법계 종파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前 교육원장 일면 스님과 자광 스님(용인 반야정사 주지)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일면 스님의 가장 큰 강점은 일정한 종단 내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광 스님은 균종감을 역임했을 정도로 오랜 균포교 경험에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균종교구 발족을 앞장섰던 지하 스님(前 중앙중의회장)과 균불교구원장 성광 스님(서울 화계사 주지)

템플스테이시찰 15억지원
문광부, 43곳 시설 개선 위해

문화관광부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전국 43개 사찰의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업 시설개선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43개 사찰의 노후화되고 부족한 숙박시설, 세면장, 식당,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지원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템플스테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금품수수 없었다” 조계종 호법부 발표

"이 건은 한 총무상 비위임이 확인됐으며, 해당업체의 담합입찰행위가 밝혀졌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해 종단관계자에 대한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비리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수)는 6월 14일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호법부는 또 "공사 진척율 54%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33억8천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3억2천여만 원이 집행된 시점에서 종단재산이 손실됐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영담 스님 고발할 것” 퍼스디자인 대표 밝혀

조계종 중앙중의회원 영담 스님 등이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계약금으로 지급된 18억 8

천여만 원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L 퍼스디자인 대표 겸 열린우리당 총남도당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L 대표는 "영담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6월 13일 밝혔다.

현해 스님 면담 무산

동대특위 출석요구에 '불응'

조계종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토진)는 6월 17일 동국대 법인사무처에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이 사장 현해 스님과 홍기삼 총장 등의 출석조사는 해당인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위원장 토진 스님은 "다음 주 중으로 조사위원들이 한 번 더 여를 갖춰 재조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529호 1면 '지금은 산골시대' 기사 중 고양 장안사는 현재 수림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기에 정정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운영 담당 스님 모집

조계종은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립과 운영 실무를 담당할 스님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2년 이상 해외장기체류 가능자 △외국어 및 현지어 가능자 등이다. (02)2011-1820 유철주 기자

「깨어있는 휴식」 해인사 여름수련법회

내일을 준비함은 오늘의 행복이다

이번 여름수련법회는 명상, 참선으로 대표되는 수행과 함께 불교전통의 수행법인 **염불**과 **주력수행**을 주제로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울 여름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길 기원하며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법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새벽예불, 은은한 독경소리, 산사의 새벽종소리..... 해인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참선수행** 1 차 : 7월 4일(월)부터 ~ 8일(금)
2 차 : 7월11일(월)부터 ~ 15일(금)까지
- ☑ **염불수행** 3 차 : 7월18일(월)부터 ~ 22일(금)까지
- ☑ **주력수행** 4 차 : 7월25일(월)부터 ~ 29일(금)까지
*주력수행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신요장구대라니"를 가능한 외워 오십시오.
- ☑ **중고등부 수련법회** 5 차 : 8월 1일(월)부터 ~ 3일(수)까지
- ☑ **초등부 수련법회** 6 차 : 8월 3일(수)부터 ~ 5일(금)까지
- ☑ **기초수행수련 법회** 7 차 : 8월 8일(월)부터 ~ 12일(금)
8 차 : 8월16일(화)부터 ~ 20일(토)
9 차 : 8월22일(월)부터 ~ 26일(금)까지
- ☑ **참가안내**
 1. 접수는 해인사 홈페이지 "해인사 포교국"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송금을 통해 참가하시게 되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동참여부는 전화로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름수련법회 참여자는 오후 1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5.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 하신 분들은 3일전까지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수련법회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7. 참가자 여러분은 정해진 수련 청규를 지켜야 하며 핸드폰, 지갑, 승용차 열쇠 등 귀중품은 수련 접수처에 맡겨 주셔야합니다.
- ☑ **동참금 및 입금안내**
 - ☐ 일반동참금 : 120,000원 ☐ 중,고등부 : 60,000원 ☐ 초,중,부 : 50,000원
 - ☐ 입금안내 : 가급적 미리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는 해당하시는 여름수련법회를 이름 뒤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금된 접수비는 불참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우체국 : 611806-01-000455 (예금주 : 해인사)
- ☑ **접수안내** ☎ 055)934-3110(포교국) ☎ 055)934-3000~2
*준비물 및 수련생이 지켜야할 청규사항은 www.haeinsa.or.kr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